

**충분한 복음 (사도행전 15:1-21)**

오늘 충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정했다. 복음은 간단하다. 복음으로 살기 원하면 인생이 자꾸 간단해진다. 간단하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 바란다. 언약을 가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제의 이유와 답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근본문제 세가지를 당했다고 말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때 일어났던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본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죄가 없으면 저주 없다는 것이 바탕이다. 사단의 문제도 당연히 그렇다. 그 때 역사를 처음 시작했던 사단의 역사가 문제지만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잡혀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가지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기초로 생각하기 쉽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 근본이고 끝까지 가야 할 언약이다. 항상 이것을 가지고 전쟁해야 한다. 이 사상으로, 이 그림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음 신앙 생활이다. 이 그림이 늘 내 마음에 눈에 살아 있지 아니하면 뭔가 세상, 또는 종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다. 언약을 잡은 예배, 아벨의 예배,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한다. 답은 그리스도 뿐인데, 이 답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야 한다. 그 비밀이 예배요 기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가지 근본문제에 대한 세가지 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될려면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이것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인도 이것 뿐이고 답도 이것 뿐이다. 다운데서 답을 찾으면 안된다.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사단에게 속는다. 이것이 살아 있지 않으면, 1초라도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 다른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 내려야 하고 각인 되어야 하고 체질 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고 답 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이 그림이 적용되어 지는 것이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제자이다. 제자는 대단하다. 대단한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단한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메세지이고 힘이 여기에 있다. 사단이 이것을 겁내지 다른 것을 겁내지 않는다. 이것으로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말할것인가? 이것을 말해야 한다. 사역자 많이 있는데, 다락방 많이 하시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해야 한다. 계속 말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말해서 그 상대가 여기에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단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망대가 되는가? 이걸 가진 자가 망대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진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망대로 쓰실 수밖에 없다. 망대를 해서 뭐할건가? 이게 망대의 내용이다. 세상앞에 하나님이 우뚝 솟은 망대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언제 세우겠고, 무엇 때문에 세우겠는가? 망대로 우뚝 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찾아온다는 것인데, 무엇을 보고 찾아올것이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것을 상세하게 한 것이 세가지 근본문제와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이것이 답이다. 대단한 메세지가 아니다. 이것이 답이고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복음은 간단하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에 있다.

**1. 충분한 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와 제자들이 현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내용들이다.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1절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안된 과도기적인 단계였다. 믿기는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한다. 안그러면 구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2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아니냐면서 많은 변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 가서 질문하자고 하고 본부로 가서 해결하는 장면이다.

창세기 17:13절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 보면 너희는 집에서 돈으로 산자든지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24절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질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 하지 아니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다하지 않느냐? 이유는 언약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확실히 맞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할례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맞지만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는 것이 할례다. 즉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다. 그래도 끝이 안 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확실하지 않냐 하고 논란이 있으면 끝이 없는 것이다. 아마 사도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야기도 했을 것이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창세기 15장의 일을 인용했다. 창 15:6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될거라고 하였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연 믿음이 생기니까 믿었다. 아직 아들도 없지만 네 후손이 별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다. 그러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다.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 받았다는 말이다. 바울이 이것을 포인트로 잡은 것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할례로 의인된 것이 아니다. 할례는 17장에서 주어졌고 15장은 할례 없었지만 구원 받았다는 것이다. 아마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에 분명히 써났고, 영원한 언약 아니냐는 것이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것이라고 써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니가 말하는 것은 기록이 없다. 니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변론과 다툼이 끝이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계속 보고했다. 그랬는데, 5절 보니까 그 안에서도 바리새파였던 유대인들이 또 율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중에 어떤 사람이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7절 보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모여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이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이방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꼭 했다. 내가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고 증거를 말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메지 못한 멍에를 어찌 이방인 제자들에게 메게 하겠냐고 말했다. 대대로 조상때부터 하나님 자손인 우리도 실패한 것을 이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메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음을 믿는다고 하였다. 자기가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 했다. 그러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였다. 증거를 말하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일어났던 또 다른 증거들을

많이 이야기 하였다. 끝나고 난 후에 사도중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것이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미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이야기 했다. 다만,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21절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단락 하고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안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사람들이 기뻐하였다고 써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이 났는데,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목을 따서 죽인 짐승은 먹어도 목 매어서 피가 있는 짐승은 먹지 말라는 말이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조건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생활 규범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래도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것이다. 믿으면 끝이라고 해야 깨끗하지 믿는데 이견 하지 말라 하면 뭔가 족쇄를 단 것 같다. 우상숭배 안하고 음행 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 해서 구태어 이 조건을 붙일 필요가 뭐 있나?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건데, 뭔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복음이 완전 복음으로 자리잡지 못한 과도기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상이나 음행은 그렇다 해도 목매어 죽인것이나 피 먹지 말라는 것은 괜히 이야기 했다.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레위기 7장 26-27절에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써 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했다.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백성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것이지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름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언약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지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이다. 곧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정도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태어 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 무슨 행동이나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실수로 무당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먹고 살일이 없어 다시 무당으로 돌아가면 우상숭배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가는가? 그 사람이 무당짓을 해서 그렇지 구원 받는다. 우리 전부 우상숭배한다. 절 안하고 굿 안한다고 해서 우상숭배 안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다 따지면 우상숭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한다고 해서 구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구원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안식교 안식일 지키라고 고집하는데, 마찬가지로이다. 아직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안되어 양다리 걸치고 중간쯤에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켰는데, 그러면 지옥 갔는가? 안식일 안지킨다고 대들었는데, 복음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다.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영원히 완성되었다.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죄의 저주를 축복과 응답으로 바꿀수 있는 능력과 답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박살을 내고 증인되면 되었지,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하고 끝이라는 것이다. 복음에서 끝내야 한다. 늘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다른게 아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한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2. 완전한 복음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충분하면서도 완전하다. 무엇에 완전

한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전하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데 완전하다. 죄 없으면 저주 없고 문제 없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주었다. 이런 저런 조건 필요 없다. 복음 하나로 끝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복음 하나로 끝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고 이것이 되어야 하고 답인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되게 해달라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 기도 하나로 끝이다. 내가 복음으로 살수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기도하면 이것 하나 뿐인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기도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이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내 기도 하나 뿐이다. 이것으로 오늘도 하나님 떠나 있는 내 마음을 해결해주세요. 지금도 역사하는 뱀의 역사를 이길로 깨게 해주세요. 답 아닌가?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할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완전하고 충분하다.

우린 뭐해야 하는가? 복음 누리는데 올인 해야 한다. 다른데 눈이 돌아가는 이 병을 고쳐야 한다. 되든지 안되든지 죽든지 어쨌든 복음으로 끝내야 한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근본문제 세가지를 해결하고 그 저주에서 건질 답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 바란다. 이것으로 끝이고 이것으로 수만가지 문제가 끝인 것이다. 이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근본문제 세가지와 그리스도의 삼직. 이것이 살아 있어야 한다. 체질적으로 내 모든 문제에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사역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야기 해도 상대가 듣는 그 말에 매일 같은 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속 만날때마다 말하는데 지겨움이 나지 않을만큼 답이 나와야 한다. 그게 사역자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 안되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닌가? 이것이 되어 있으면 문제 와도 상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으면 문제 와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문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역전되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과정에서 자꾸 불만 갖지 말라는 것이다. 진짜 복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답 내기 바란다.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능력이고. 이것으로만 이길수 있다. 그래서 오직 너는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다. 전하기 전에 오직 이것을 누리라.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진 것이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힘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생각하고 답 내고, 각인하고 다시 각인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이것을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서밋타임에 무엇하나? 기도수첩 한다. 왜 하나? 복음에 답 날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기도수첩은 기도수첩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다. 거기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잡히면 모든 문제 끝이다.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근본문제 세가지가 원인이다. 해결할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뿐이다. 다시 한번 언약 잡아야 한다.

언약 가진 자가 세계를 향해 일어서면 그것을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것이다. 언약을 가지고 소원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쓰시는 것이다. 남미와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올수 있도록 우뚝 선 망대가 되어야 한다. 오면 뭐하는가? 복음을 말해줘야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망대가 되어야 한다. 내가 망대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한 개 딱 있다. 근본문제에서 나를 건진 그리스도. 축복있기를 바란다. 렘넬트 7명 전부 이렇게 만들어 졌다. 로마서 16장 인물 전부 이렇게 망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망대같이 전세계위에 우뚝 선 망대가 되기를 바란다.